

힘든 세태 반영... 우울과 애환·꿈의 좌초 다룬 작품 많아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

시·소설·동화 등 2612편 응모
한강 노벨상 수상에 문학 관심
당선작은 2025년 신년호 발표

국내의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국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의 계엄사태, 경제 불황 등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요즘이다.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예술 가운데 문학만큼 적합한 장르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 신춘문에 작품들은 경향성 측면에서 다소 어두웠다는 후문이다. 우울과 애환, 꿈의 좌초, 죽음 등을 모티브로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다만 작금의 비상계엄사태는 공모 기간 마지막에 발생해 작품에 다수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투고 작품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변화에 있던 문학이 중심부로 다시 회귀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끝났다. 이번 심사는 12일 본사 편집국 9층에서 진행됐으며

합정임 소설가, 장석주 시인, 김성범 동화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시 2117편, 소설 272편, 동화 223편 등 2612편이 응모됐다. 언급한 대로 예년보다 많은 작품이 응모됐는데 '한강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응모자들은 광주 전남 외에도 전국 각지에 분포할 만큼 다양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영남, 충청 등에서 투고를 했으며 외국에서 작품을 보내온 응모자도 있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작품을 투고한 경우, 장르를 달리해 투고한 경우 등도 있었는데 신춘문에 대한 열망으로 읽혔다.

소설은 일상적이며 직설적인 문장으로 서사를 풀어나간 작품이 많았다. 과거 현대사 속의 개인의 회고담, 낯선 곳을 여행하며 그린 작품 등도 있었다.

합정임 작가는 "예술과 전시를 소재로 하거나 여행을 소재로 한 작품은 삶의 공간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며 "중장년이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렉커, 디지털 커뮤니티 범죄 피해나 남용, 약물을 다룬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과거 현대사 속의 개인 회고담을 일상적 문장으로 풀어낸 소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 부문은 예년보다 많은 응모작들이 투고됐다. 오늘의 어두운 분위기를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 많았다.

장석주 시인은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일까.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12일 본사 편집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장석주 시인, 합정임 소설가, 김성범 동화작가.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체적으로 삶의 근핍에서 비롯된 우울한 기분을 노래한 시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곡절, 현실의 엇갈림, 꿈의 좌초를 다룬 시들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상상력이 산술적 평균을 깨고 도약하는 통쾌함을 보여주는 시는 드물었다"고 부연했다.

조선의 시인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작품, 작금의

현실을 직시한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설명적인 작품, 겉멋에 치우친 작품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동화는 문장력은 우수하나 교조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작품이 많았다. 소재에 있어서는 '소', '할머니', '시골집' 등을 다룬 투고작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에 비해 활발한 상상력과 어린이의 시선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동화는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김성범 동화작가는 "주로 작품들은 가족 이야기, 학교생활 이야기가 주를 이룬 작품이 많았다"며 "판타지 세상으로 다져지고 밀어 넣은 당황스러운 작품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문 당선작은 2025년 광주일보 신년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년이 온다” 광주 이해하는 ‘진입로’ 되길

한강, 한국언론대상 기자간담회



한강 작가

한국 작가로는 첫,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첫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가 광주를 이해하는 데 ‘진입로’ 같은 것이 돼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강은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출판사에서 가진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강은 “이 소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만큼 더 조심스러웠다”며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 ‘진입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강은 지난 7일 열린 강연에서도 ‘소년이 온다’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온다’는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다. 너라고, 혹은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불리는 순간 회귀무제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이 혼의 걸음걸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와 현재가 된다”며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강은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그는 “(제 작품이) 번역된 언어가 28개 혹은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 수는 50명 정도”라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

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번역가들과 저는) 함께 있는 것”이라며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의 뛰어난 문학적 역량 외에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일선에서 번역에 매진하는 번역가들의 노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의 창작’이라고 불리는 번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한강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3부작 가운데, 그 마지막 시작했던 글이 결이 달라고 분량도 길어져 ‘작별하지 않는다’가 됐다”고 했다.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겨울까지 끝낼 계획이었지만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는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연휴뉴스

핑크·블루스·소울로 ‘심청날다’

한국메세나협회·메트라이프 재단, 14일 광산문화예회관

판소리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심청날다’는 국악이 울드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려 주요 대목에 핑크, 블루스, 소울 음악을 접목했다. 오늘날 감성으로 재해석한 레퍼토리는 판소리의 대중적 흥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메트라이프 재단이 ‘심청날다’를 오는 14일 오후 4시 광산문화예회관 공연장에서 연다. 2021년 JTBC 풍류대장으로 이름을 알린 소리꾼 서진실, 오단해를 중심으로 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날다’가 출연해 우리 민영을 돋운다.

‘폐지나 칭칭’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심봉사가 딸 심청을 야기는 ‘등등내 말’, 어릴적 심청의 감성을 담아낸 ‘소년 심청’으로 이어진다.

주로 가야금병창으로 연행되던 ‘중 울라간다’ 대목도 뮤지컬 버전으로 상연할 예정이다. 심봉사가 황성에서 열리는 맹인잔치에 참가하기 위해 여정에 나서는 내용.

클라이막스 ‘심청날다’를 비롯해 ‘화초타령’, ‘방아타령’ 등 원작 판소리에서 익숙한 대목들도 울려 퍼진다. 끝으로 심봉사가 다시 빛을 보는 ‘눈을 뜨고’, 서로 열싸안고 회한을 푸는 ‘옹헤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2019년부터 진행해 온 ‘The gift’ 프로젝트 일환으로 펼쳐진다. 1기 ‘역스’, ‘코리아아트빌리티 체임버’에 이어 2022년부터 2기에 ‘날다’가 선정돼 3년간 지역사회에서 공연 개최를 지원한다.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날다’ <밴드 날다 제공>

공연 관계자는 “새로운 국악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레퍼토리를 개발해 온 ‘날다’가 보여주는 판소리 뮤지컬이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간다’는 미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광산문화예회관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저글링·마임·서커스...년버벌 음악극 진수

팀 퍼니스트 ‘트레인 블루스’, 14일 북구문화센터

팀 퍼니스트는저글링, 마임, 서커스 등을 년버벌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여 온 팀이다. 이들은 2003년 창단 이래 ‘관객들에게 여러 예술 형식으로 즐거움을 불러오겠다’는 목표를 갖고 다원예술 장르를 연구해 왔다.

팀 퍼니스트가 특별기획 서커스 음악극 ‘트레인 블루스’를 오는 14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지난해 광주에서 상연했던 ‘체어, 테이블, 체어’ 공연에 레퍼토리를 추가한 다원예술 무대로 아크로바틱, 마술, 비눗방울 레퍼토리 등을 볼 수 있다.

먼저 자작곡 ‘Train blues’와 함께 의자 여러 개를 위태롭게 쌓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즉석에

서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은 큐리코더 파르팻이 편곡한 ‘할아버지의 11개월’과 함께 관객들을 만난다.

이들의 자작곡 ‘인연’, ‘추억’, ‘All of me’를 비롯해 야광 드로잉 ‘달빛편지’, 자바 라이브 ‘만남’ 등이 울려 퍼진다. 저글링 및 아코디언에 김희명, 저글링·드럼에 최대성, 드로잉 및 우쿨렐레 연주에 임동주가 출연할 예정이다.

색소폰 연주는 김환상이, 퍼커션 및 드로잉은 우석훈이 맡는다. 이이 베이스리스트 심재성, 신용의 비눗방울·인형극이 공연장을 수놓는다.

북구문화센터 문화운영팀 문나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지만 아트 서커스와 화려한



팀 퍼니스트 최대성 단원이 마임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팀 퍼니스트 제공>

라이브 연주를 곁들여 따뜻한 감성을 유머러스하게 전하리라 기대된다”며 “지난해에 비해 업그레이드 된 독창적인 년버벌 서커스 쇼가 올해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